

제26대 한기총 대표회장에 전광훈 목사를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추대했다.

2020년 1월 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 제31회기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전광훈목사는 제 26대 대표회장 단독후보로 출마, 출마의 소견을 발표 하고 있다.(사진=교회협동신문)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개회예배는 공동회장 김창수목사의 사회로 김원남목사의 기도로 진행되었다. 증경한기총대표회장 이용규목사는 설교에서 "한기총의 설립정신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정기총회는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목사가 2부 회무처리를 진행했다.

전 대표회장은 의장 인사를 통하여 "한기총은 앞서간 선배들이 물려준 복음주의 정신과 또한 한기총 정관은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 용공주의, 신학, 해방신학을 배격하는 목적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목적대로 설립된 교회연합기관이다. 한기총 정관에 따른 정신으로 한기총은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기총 서기목사가 회원점명을 하여 53개 회원교단 및 단체(위임 3개 교단 및 단체)에서 총회대의원 153명이 참석한 것을 보고 했다. 개회선언이후 회순 채택, 전회의록 채택, 2019년도 경과 및 사업보고, 2019년도 감사보고와 2019

년도 결산보고를 감사를 득했기에 유인물로 받자는 동의제청과 가부로 받아 안건 및 회무처리가 이어졌다.

먼저 대표회장 선출의 건은 선거관리위원장 김자연목사가 진행하여 제26대 대표회장에 전광훈 목사를 선거관리 규정 제7조와 제8조3항 단일 후보일 때는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 조항에 근거하여 대표회장 후보로 전광훈목사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전광훈 목사는 출마소견에서 "하나님께서 금세기에 주신 최고의 선교의 선물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크게 위협해졌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일기장에 보면 "하나님! 왜 우리를 어두운 땅에 버렸습니까? 조선 땅을 와보니 앞을 봐도 어두움, 뒤를 봐도 어두움, 어두움 밖에 없고 그 어두움을 벗겨 주려고 가까이 가면 서양귀신이 온다고 소리치며 도망갑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께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선교사를 보내어 준 것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134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학교 짓고 교회 짓고 병원을 지어 선교를 시작함으로 오늘날 1천 2백만 성도로 성

장했습니다. 특히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양육함으로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134년 전에 착박한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를 지나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로 성장하는데 항상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국가와 사회 앞에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처

지에 처했습니다. 마치 그들은 교회가 국가와 사회 앞에 전혀 필요 없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의 역할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금번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의 변을 전했다.

김자연 선거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 제7조와 제8조3항에 의거 전광훈목사를 한기총 제26대 대표회장으로 박수로 추대하였다.

전광훈 신임 한기총 대표회장은 당선소감으로 "복음통일, 선교한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애국운동을 마무리하고 한교연과 통합을 이루어 내고 순차적으로 교회 연합기관과의 통합을 이루어 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위원장 김자연목사가 제 26대 대표회장 전광훈목사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기타안건은 2019년 9월 26일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이 된 회원가입을 전국 253개 지역연합회 가입 건은 지역연합회 총회 대의원은 2명이며 가입비는 현재 500만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설명하니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또한 2019년도 실행위원회와 정기총회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받고 폐회하여 지덕목사의 기도로 마무리 되었다



▲ 한기총 제31회기 정기총회

한기총 미주 총회 제17대 회장에 심평중 목사 취임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통일 위해 힘 모을 것"



▲ 취임사를 전하는 한기총 미주 총회 제17대 회장 심평중 목사 (포토: 기독교일보)

한기총 미주 총회는 지난 25일, 주님의 사랑교회(담임 서사라 목사)에서 제17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심평중 목사(오콜라호마, 로턴장로교회)의 제17대 한기총 미주 총회 대표회장 취임식을 기졌다.

심평중 목사는 안양대학 신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신학대학, 대한신학대를 졸업하고 미국 장로교 PCUSA 한인교회 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오콜라호마 로턴 한인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심평중 목사는 취임사에서 "한반도 통일은 고려연방제나 사회주의식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적인 통일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결한 삶으로 부흥을 바라보며 협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기총 미주 총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설교는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민승기 목사가 "희망의 장소"(삼상 22: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민 목사는 "지난 12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광화문을 찾아 전광훈 목사님을 만났다. 아들람의 공동체 같았지만 그곳에서 대한

민국의 희망을 봤다"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이유는 복음전파의 선교 사명임을 기억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 하 나님의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

하자"고 강조했다.

서면으로 축사를 보낸 한기총 전광훈 목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이 험난한 상황이며, 많은 기도와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기총 미주 총회가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경동 목사도 서면으로 축사를 보낸 국가와 민족을 위한 한기총 미주 총회 회원들의 기도를 당부했다. 장경동 목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않는 것은 죄"라며 "해외 디아스포라에 산재해 있는 교회와 성도, 목회자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 정완기 목사, 남가주 한인 목사회 회장 이정현 목사, 남가주 한인 예비역 기독교 군인회 김희창 목사, 전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원영호 목사, 전 안양대학 총장 이은규 박사, 한기총 미주 총회 발기인 양승걸 목사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 광야교회를 위해 헌금하고, 광야교회 성도들이 지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심해 기도했다. 또 특별 기도 시간을 갖고 △한기총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의 분열된 국론의 화합을 위하여 △한국의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목회자 영적 각성을 위하여 등의 제목으로 기도했다.

Contents

2 교단소식

3-5 교계소식

6-7 신앙과 삶

8 전면광고



전광훈 지음 | 237쪽 | 25,000원

5천만 국민이 알아야 할 대한민국! 존재의 시작

그의 분노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여 우리의 영원한 소원인 통일을 위한 해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저자 전 광 훈

전국 서점 판매 / 대량구매문의. 1599-6248

PURITAN PUBLISHING 퓨리탄출판사



▲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149길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송천장로교회 전경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분명하다

송천교회는 헌법적 가치를 사수하기로 대 내·외적으로 선언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한다.

안보는
1950년 6월25일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한 적화통일 목전에서 UN결의에 의하여 한국전에 참전한 국가중 최고의 희생을 치른 우방국 미국과의 동맹을 근거로한다.
튼튼한 안보 속에서 한강의 기적과 경

제발전을 통한 세계 10위권의 발전을 했다.

그러나
작금에 안보불안 현상을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국가 정체성과 도덕과 윤리 기준으로 지켜오고 보존한 관습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성평

등을 위한 차별금지법 등으로 가치관을 붕괴시키는 현상을 보면서 대외적으로 선언을 할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을 적극지지하여 교회의 고유한 사명이며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 중 네 번째 기둥인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땅끝 선교를

사명으로 한다는 헌수막을 36년동안 한 자리를 지키던 교회건물에 내건 것이다.

국내, 외에 있는 모든 교회는 복음의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표현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를 호소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송천교회 담임목사는 당당하게 강조했다.

전광훈목사님에 대한 나의 견해-1



작금의 시대처럼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국민이 대놓고 극명하게 양분된 경구가 없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대한신학대학대학교 신학공부때 한 과목을 전광훈 목사님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되는 것도 있었지만 못마땅하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혼돈의 시대에 애국운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분만의 독특한 기질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안보문제'인데, 요즘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서 눈물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군 사단이 해체가 되고 우방국가들과의 틈이 생기고 점점 답이 없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안보불감증입니다

저희 집안은 작은 아버지가 6.25 당시 경찰관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작은

아버지께서는 머리에 총을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부모님과 형제 가족 모두 죽음의 사투를 버리며 평생 장애 인처럼 등이 굽은 상태로 다리가 썩어 가며 장애인처럼 사투하며 아픔으로 살아오시다가 그렇게 다들 떠나셨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복음과 공산주의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는 저의 아버지 어머니의 무수한 상처를 바라보며 평생 신음소리로 살아오

시는 모습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전광훈 목사님의 비판받을 만한 기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부분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쩌면 전목사님만이 가진 기질때문에 한국교회 복음통일 운동을 할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불같이 화를 잘 내거나 인격적으로 모난 인간들을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도 하였습니니다. 그래서 모든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정히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백하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모'나지 않다고 자부할수 있을까요? 비성경적인 막말에 대해서는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러나 애국운동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도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애국운동을 끌고 가는데 기독교가 뒤에서 참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입니다 기독교가 주축이 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복 순창이 고향이어서 선거때만 되면 무조건 제 고향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잘못을 따지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지금까지 응원하며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아닙니다

저는 전복 순창이 고향이어서 선거때만 되면 무조건 제 고향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잘못을 따지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지금까지 응원하며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아

닙니다 경제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것은 안보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안보를 최고로 여기고 나가는 정치인들과 정당을 지지할것입니다.

목사들이 그렇게도 목이 터져라 동성에 반대를 하면서도 선거때가 되면 동성에 응호자를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최종 결정할때에는 사상과 신념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지함이 얼마나 무섭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목사들의 민낯에 할말을 잇은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저부터 한없이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여

성도님들이여 정신 차리고 회개하시고 광화문 광야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영하의 추위에 사투를 버리며 나라를 위

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총질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도나 해주세요. 저도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전기장판 하나로 살기때문에 방 온도가 요즘은 10도 정도입니다 얼굴이 시렵고 손이 시려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보일러가 가동되어 겨울에도 훈훈하고 수도 꼭지만 틀면 더운물이 나오는 그런 호사를 누려본적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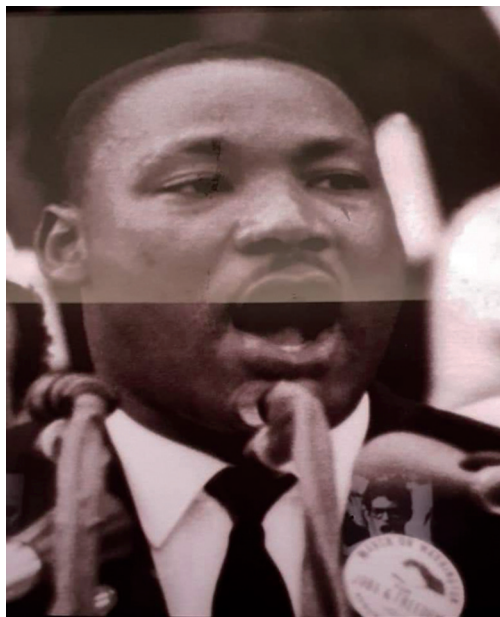
그러나 광화문의 광야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제가 오히려 사치를 누리는 것 같아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추위에 떨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사랑하며 함께 할수 있도록 언어사용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화문 광야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왜? 이리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종 오지성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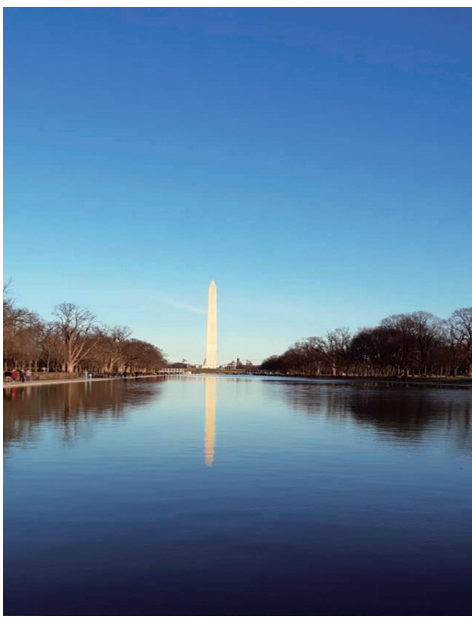
하나님의 형상임을 회복하는 일이 진정한 인권 운동입니다. 1월 20일을 마틴 루터 킹의 날



▲ 사진 왼쪽 마틴 루터 킹 오른쪽 워싱턴 디시 링컨 기념관

1월 20일은 마틴 루터 킹의 날이라고 하여 기념한다.

워싱턴 디시 링컨 기념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나에게는 한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으로



시작하는 귀한 연설을 하고 바폭력적 인권 운동을 이끌다 죽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생각하는 것이다.

아울러 성경에서 배운 인권 개념을 모두 깊이 생각했으면 한다.

함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이승구 목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진정한 인권 개념에서 떠나간다는 것은 온 세상에 선언하고 드러내야 한다." 고 전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회복하는 일이 진정한 인권 운동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잘못되고 일그러진 인권 개념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권 개념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그런 입장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전했다.

강영철기자

열린문교회 설립18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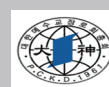
열린문교회(담임 이창복목사)가 지난 2월 2일 (주일) 감사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오실 때까지 위임하신 선교사명과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를 세우기며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 맞이할 신부처럼 단장하는 교회로서 지난 18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예배로 드렸다.

특히 설립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송천교회 담임 최중환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였다. 최 목사는 "선교사명과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를 세우기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교회가 되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으로 복음통일, 예수한국을 만들자." 고 전했다.

이어 특별찬양은 노회 소속 박중현목사가 은혜롭게 섬겨주어서 설립감사에 배가 더 뜻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한편 열린문교회는 이창복 목사가 개척하여 지금까지 목양일념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성도 사랑과 나라사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이 목사의 고교시절 절친인 김윤세 회장(인산가족염)의 열린문교회 성도로서 지역사회 및 동료 목회자의 건강에도 많은 섬김을 베풀고 있다.



대신교회협동신문

대표 최중환

발행인/편집인 강영철 인쇄인 이병동 청소년보호책임자 강영철

등록번호 경기, 다 50524 등록일 2016년 4월 19일

주소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149

전화 032-664-0153~4

후원 농협 355-0064-8056-93 대신교회협동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한민국 이대로 끝나는가?

3.1절 행사 2월 29일(토) 낮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



▲ 광화문 이승만광장 국민대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선언한 말부터 서독의 간첩 윤이상 묘지에 부인을 시켜 참배하였고 6.25의 3대 전범이며 남조선 적화물 위하여 북한의 대남 간첩 총사령관인 김원봉을 국가 유공자라고 하는가하면 완전한 공산주의자인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시도하다가 10월 국민혁명의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조국보다 10배 이상인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남한의 모든 국토를 개인으로부터 뺏어 국가 토지 공유제로 공산주의를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4.15총선에서 200석을 달성하여 평화 헌법으로 개헌하고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려 하는 의도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목적지에 반대하는 자들은 무차별 공격하여 매장시키고 윤석열 검찰 총장까지 추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살길은 주사파와 문재인 일당을 속히 끌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국민들 중 일부는 문제인의 국가 해체를 통한 북한의 편입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삼일절 (2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주사파를 제외한 전 국민이 뛰어나와 국민혁명으로 문제인의 대한민국 해체를 막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방송 “너 알아 TV, 신의 한 수, 팬 앤드 마이크, 고성국 TV, 조갑제 TV” 등을 통하여 알아보시면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키지 못한 자는 누릴 수 없습니다. 특히 김문수 지사님의 고백을 통하여 현 대한민국 상태를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독일이 히틀러에게 속아서 2차 대전에 비극적 사건을 만든 것과 패전 후 히틀

러에게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945년 독일과 똑같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속히 국민들이 깨닫고 독일의 아테나워, 빌 브란트 등의 지도자를 따라 반나치 법을 제정하고 나치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자는 처벌하여 독일을 바로 세운 것처럼 대한민국도 돌아오는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달성하여 주사파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자들은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삼일절(2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 행사에 국민혁명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김정은 밑에서 살던지 대한민국의 영광 안에서 살던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국민들께서 지나친 기우라 생각하러 방관한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하수인 문제인에 의하여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도 있으

나 결정적 실수는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건국 70년 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을 포함한 일본과 전 세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대한민국만 모르고 있다면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교조, 민노총, 주사파들에 의하여 이념이 감염된 분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백신으로 치료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없는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분투하는 윤석열 검찰 총장과 애국가 지도자들을 지켜내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만큼은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위대한신 애국심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삼일절(2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 행사에 총력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자유통일당 창당, 전광훈 목사 후원

1일 동작동 국립묘지 참배로 일정 시작



▲ 자유통일당 1일 동작동 국립묘지 참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자유통일당이 창당되었다. 초대 당대표는 김문수 전 지사가 맡게 되었다. “26년 간 자유한국당원”이었다는 그는,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주사파와 투쟁하지 않는다”며 최근 결별을 선언했었다.

자유통일당은 지난 31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창당대회를 가져 뜻을 같이 하는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는 이 당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후원만 한다.

김 전 지사는 그 동안 전 목사와 광화문 집회를 이끌어 왔다. 지난 21일 기독교자유당 전당대회에도 그와 함께 참석해 축하했다. 신당과 기독교자유당의 관계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에 김 전 지사는 1일 광장 집회에서 “기독교자유당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정당”이라며 “자유통일당은 타종교인과 일반 국민까지 대상으로 한다. 전광훈 목사가 이를 후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또 “광장의 투쟁을 중심으로 창당하였으며. 그리고 이 자유통일당을 발판으로 자유대연합과 (4.15 총선에서의 보수·우파) 후보단일화가 목표”라고 했다.

한편, 그는 26일 자신의 SNS에 “

주사파 독재를 끝내기 위해서는 자유대통합을 해야 한다”며 “그 원칙은 ‘광장에서! 반문재인 투쟁 가운데서!’다. 자유통일당은 반문재인·반주사파 투쟁에 앞장설 것이고, 자유민주세력의 대통합에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주일 전국연합예배에서 자유통일당 창당과 관련해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보자는 것이다. 우리를 다 태우면서 세상을 밝히고 우리 몸을 녹여서 맛을 내자는 것”이라며 “빨갱이 기생충을 물리치고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 거기에 희생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저는 국회의원을 세 번 하고 도지사도 두 번 했다. 아무 정치적 욕심이 없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도 “어차피 내가 여기에 총대를 메었으니 당을 만들어주는 데까지는 할 수 없이 고생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도 저는 정치는 절대 안 한다”고 했다.

한편 김문수 자유통일당대표 및 당원들은 1일 동작동 국립묘지 참배로 자유통일당 당무를 시작하였다. 새롭게 전개될 자유통일당과 보수 우파의 재편성을 기대해본다.

김두현 목사의 이것이 목회 본질이다 6



김두현목사

한국교회가 총체적 위기를 겪게 된 원인은 시대와 동떨어진 낡은 행보 때문이다. 아직도 교권 권위 형식 제도에 갇혀있다. 어린이 교육이나 말씀훈련 공간이 부족한데도 원로목사 사실 원로장로실 당회실 성가대실을 만든다. 여전히 교회를 위한 교회회를 위해 기득권을 보전하려 한다. 그러나 탈현대 시대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탈현대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장벽이 무너진 탈현대성을 추구한다.

대표적 특징으로 상대주의가 있다.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현대인에게서는 기독교와 교회도 상대적일 뿐이다. 다원주의 특징도 보인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문화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다.

상대주의는 혼합주의로 서로 벽을 허물고 해체해 같은 문화를 만들어 내며 동성애성전환 퓨전 유니섹스 뉴에이지 음악 등을 확산시킨다. 이렇게 탈현대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이 획일적인 규범에 의존하지 않는다. 극도의 개인주의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영향은 교회 주변을 떠도는 가나안 신자와 탈교회관을 만들어냈다. 영국 종교사회학자인 그레이스 데이비 교수의 말처럼 ‘믿기는 하지만 소속되지 않음’ (believing without belonging) 특성을 가진 종교교인을 양산해냈다. 데이비 교수에 따

교회가 서 있는 이 시대를 읽고 ‘전략적 변혁’ 힘쓸 때

21C 목회연구소장 김두현목사의 이것이 목회본질이라는 제목으로 16회 연재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르면 사람들은 점점 종교제도나 형식, 의례, 가르침, 신조를 교회에 소속돼 따르려 하지 않으며, 더 개인적이며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탈현대 시대 많은 젊은 기독교인이 케 이블TV 인터넷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휴대전화로 신앙생활을 대체한다. 종교를 실존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개인적 기호로 자유롭게 선택해 편리와 자기만족을 추구한다. 탈제도화 신앙 트렌드를 추구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 같은 탈현대주의 시대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교회의 핵심 가치, 비전, 프레임, 설교, 사역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 즉 전략적인 변혁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21C목회연구소도 목회 본질을 지키며 ‘시대적 교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목회자들에게 강조한다. 매주 목회자들은 그룹별로 연구소에 모여 세계적 교회의 흐름과 전략을 분석하고 탐

구한다. 시대적, 세계적 교회들과 목회적으로 네트워크 하기 위해 힘을 쏟는다. 목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운동인 셈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를 보면 미국처럼 시대적 교회를 세우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교회는 세계를 주도하며 이끄는 리더 교회가 시대마다 주류 교회를 형성했다. 1950~60년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로버트 슐리(수정교회) 목사, 70~80년대 새들백교회(릭 위렌 목사)와 윌로우크릭교회(빌 하이벨스 목사)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

90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주며 처치플랜팅을 주도하는 목회자는 팀 켈러(리디머교회) 목사와 액츠29 네트워크(Acts29 network)를 이끄는 매트 쉐들러(빌리지교회) 목사다. 이들은 미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새로운 목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는 중심에서 변방으로, 주류에서 비주류로,

모델에서 모방으로 급격하게 교회 지형도 좌표에서 이탈하고 있다. 자연스레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 생태계는 미국교회보다 30~40년 뒤쳐져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하는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 미국교회가 앞서 나가는가. 급변하는 시대 속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복음과 교회를 향해 살아있는 리더들이 꾸준히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기 교회만을 거대하게 만드는 지도자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통해 교회를 보는 시야와 관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개념과 의식을 품는 목회자가 창조적 글로벌 리더다. 미국에선 위기마다 활화산처럼 바위를 뚫는 모험적인 교회들이 솟아났다. 한국교회는 이제 시대적 교회가 돼야 한다. 지역주민이 어떻게 살든 자기 교회 부흥만 쟁기고 자기 교회 성도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80년대 목회 스타일로는 이

제 희망과 미래를 찾기 힘들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간단하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자성과 겸손의 자세로 과감히 혁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를 찾아 배우고 닦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시대적 교회를 세우는 건 역부족이다. 교회구조 신학 인프라 전략 매뉴얼 인력 연구문화 재정 자원 모든 분야에서 한국교회는 투자보다는 소비형 교회로 가고 있다. 게다가 생존에 급급한 교회 수가 70%를 넘고 있다.

21C목회연구소가 미력하나마 목회적 고통 속 고민을 나누기 위해 매주 소통의 자리를 갖고 있다. 매주 3회(월·화·목요일) 시대적 교회를 준비하며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세우기 위해 토론과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모임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영훈목사 강력 추천 연설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저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좌익정당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2번 제적되고 25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공장생활하면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감옥에 두 번 가서 2년 5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김일성주의자, 주사파 학생들 수백 명과 만나서 토론도 많이 하고 함께 생활도 했습니다. 광주교도소에서 남파간첩, 공작원, 국내간첩, 재일교포 간첩 100여명과 함께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에 심취하여 공부하고, 공산혁명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산혁명을 꿈꾸는 선배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비밀지하혁명조직 생활도 10여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운동권 출신 대부분과 함께 활동하고 같은 시대를 꿈꾸고 투쟁해왔습니다. 제가 50년 간 겪어왔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은 이미 종북 주사파와 좌파 연합에 넘어갔다고 판단됩니다.

I. 주사파 집권

지금엔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1. 체철험 반공

6·25전쟁 휴전 이후 우리 국민 대부분은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해왔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공산치하에서 살아왔던 이북 피난민의 체철험와 해방 이후 빨갱이들의 폭동과 6.25전쟁기의 만행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해방 직후 좌익 경험이 있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통혁당, 인혁당, 남민전 등 김일성의 남조선혁명노선을 따르는 지하혁명당 활동이 끊임 없이 계속 시도됐습니다.

2. 반미 친북운동의 확산

실패를 반복하던 중, 1980년 광주사태를 겪으며, 학생운동과 민주화를 열망하던 시민들은 피의 학살과 전두환의 집권이 미국의 묵인 아래 자행됐으며, 미국문화원에 방화하는 사건이 터지기도 하며, 급속히 반미 친북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대남방송을 들으며 정리한 김영환의 “강철서신”이 대표적인 주사파 운동권 문헌입니다.

신군부의 12.12쿠데타와 광주사태, 그리고 민주화의 좌절을 겪으며 종북 주사파는 대학가로 급속하게 확산됐습니다.

3. 종북주사파 학생운동

종북 주사파가 학생운동을 급속하게 장악하게 된 원인은 첫째, 전두환의 12.12쿠데타와 광주학살로 민주화의 꿈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론은 체계적이고 쉽고, 대한민국 현실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론 보다 한국적이며 쉽습니다. 북한이라는 조선공산혁명 기지에서 권력을 가진 김일성집단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매일매일 대남방송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대중성, 민족성, 적합성, 신속성은 기존 마르크스·레닌 공산혁명이론 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아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4. 전대협·한총련 20년

전대협(1987-1992),한총련(1992-2007)이 20년간 전국대학 학생회 조직과 학생

운동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장악하였습니다. 이들은 표면 대중조직인 전대협, 한총련과 지하비밀 지도조직인 혁명정당을 나누어서 조직·운동합니다. 학생운동을 마친 운동권은 사회로 나와서, 사회대중운동으로 투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수십만의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 투신합니다. 공장으로,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민주노총입니다. 정계로 진출합니다.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에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언론계로 들어간 기자들도 학생운동의 경험으로 민주화를 계속한다며, 언론노조를 결성하여, 지금 KBS, MBC, SBS,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을 불게 물들였습니다. 고시에 합격하여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변역연구회를 결성하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 청와대, 서울시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장악했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전교조를 결성

하여, 어린 학생들을 불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영화계로 진출하여 운동권 영화를 만들어 천만 관객을 올립니다. 문화 예술계를 석권했습니다. 사업에도 투신하여 사업가로 성공하여 부르조아가 되었지만, 그의 사상은 여전히 종북 주사파로 남아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문화, 방송, 예술, 경제계, 기업, 동네 구멍가게까지 완벽하게 붉은 혁명사상으로 물들였습니다.

5. 주체사상의 힘

주체사상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첫째, 체계적입니다.

둘째, 성경 보다 쉽습니다.

셋째, 살아있는 권력 감정은 움직이는 사상이요 이론일 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권력입니다.

넷째, 젊은 대학생시절, 조국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자주통일을 위해, 최후탄을 마시며 싸우다가, 도망 다니고, 잡혀서 고문 당하고, 감옥을 들락거리며, 청춘을 바치며, 헌신했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인이 되어서도 운동권의 동지적 인간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서로 짝을 이뤄서 부부가 된 경우에는 혁명가정이 됩니다. 자녀까지 대를 이어 사상이 이어집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상을 바꾸는 것은 담배 끊기 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북 주사파들이 수백만 배출되었고, 지금 마침내 청와대부터 대한민국의 국가권력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세계 어떤 공산혁명 때 보다 더 완벽하게 국가권력을 장악했습니다.

6. 자유주의 배격 11훈

공산주의자들의 신조는 자유주의 배격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히 자유주의를 부르조아 사상이라며 배격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적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내세웁니다.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입니다. 좌익들은 자기들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조아 독재”를 예쁘게 포장한 “가짜 민주주의”라고 비난합니다. 좌익들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는 공산주의의 배격 대상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제가 운동권에서 혁명을 꿈꿀 때, 회합 전에 암송하던 〈자유주의 배격 11훈〉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운동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엄선된 소수혁명가들이 하던 것입니다. 남로당과 빨치산 대원, 남한 혁명조직원들이 사상 강화의 방법으로 모택동의 〈자유주의배격11훈〉을 당 생활의 기준과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자유주의 배격 11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상투쟁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그것은 당과 혁명단체의 단결을 가져오게 하며, 싸움의 무기를 더욱 날카롭게 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와의 사상투쟁을 거부하게 되면, 무원칙한 화평을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 써어빠진 작품이 생겨서, 혁명단체의 어떤 개인은 정치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한다.

1. 극히 다정하고 친밀한 동창 혹은 고향의 친지, 친구 또는 오랫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했다고 하여, 원칙상의 논쟁을 피하며, 화평의 수단으로, 가버이 되는대로 방임함은 곧 자유주의 표현의 첫 번째 유형이다.

2. 책임 없이 뒤에서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조직기관에 제의하지 않으며,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비방하며, 회의 때는 말하지 않고, 회의 후에 떠들며, 집중생활의 원칙이 마음속에 없고, 자유로이 방관함은 곧 자유주의 표현의 두 번째 유형이다.

3.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다만 벽에 걸린 사진을 대하듯이, 남을 책하지 않고 말하지 않음이 명석한 보신술이라면서, 앞드려 침묵함이 곧 자유주의 표현의 세 번째 유형이다.

4.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조직규율을 돌보지 않으며, 간부라는 구실로 자기 의견만 고집함은 곧 자유주의 표현의 네 번째 유형이다.

5. 단결과 진보를 위하거나, 부정확한 의견을 고치려는 것보다, 개인공격을 주로 삼아, 분하게 생각하고 보복하려 함은 자유주의 표현의 다섯 번째 유형이다.

6. 부정확한 의견을 듣고도 항변하지 않고, 반혁명분자의 말을 듣고도 보고하지 않으며, 무사태평하게 지내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여섯 번째 유형이다.

7. 군중에 대하여 선전하지 않고 선동하지 않으며, 연설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으며, 묻지도 않고, 그 고통까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무조건 지지하여,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의무를 망각한 한사람의 백성처럼 되는대로 지냄은 자유주의 표현의 일곱 번째 유형이다.

8. 대중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보고도 격분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으며,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내버려두는 것은 자유주의표현의 여덟 번째 유형이다.

9. 일에 충실하지 않고, 일정한 목적 없이 하루를 되는 대로 지내며, 마치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듯이 하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아홉 번째 유형이다.

10. 자존심만 높여서 혁명의 공이 가장 많은 것 같이 노선을 거스르며, 큰일은 할 능력이 없고, 작은 일은 하기 싫어하며, 학습에 노력하지 않고 태만함은 자유주의 표현의 열 번째 유형이다.

11.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자기비판을 하되 비판실망에 그치고 마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열한 번째 유형이다.”

II.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자의 특성

1. 자유민주주의자의 특성

좌익혁명운동권 출신인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에 대해 체계적인 사상학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운동권이라고 할 정도로 조직화·체계화 되지 않고, 태극기집회가 처음으로 실행된 자발적 애국 대중운동이 아닌가 합니다.

셋째, 태극기집회는 사분오열되어 서로 단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고관대작이나 대기업가, 세계적 전문가도 많지만 지킬 것이 너무 많아서인지, 앞장서서 숄선수범하며 희생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다섯째, 최근 전대협, 새벽당, 트루스포럼 등 젊은 자유주의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희망의 새싹들입니다.

여섯째, 자유한국당이 자유파의 중심정당인데 너무 기득권화 되어, 강한 목표의식과 전략전술이 취약하고, 투쟁성·헌신성이 약합니다. 일곱 번째, 새누리당 국회의원 가운데 60여명은 자기가 만들고 당선시켰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는데도, 방청, 면회, 석방운동조차 한 번도 하지 않는 기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2. 자유파

자유주의자, 자유파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헌법체제를 김일성주의 주사파로부터 지키려는 집단을 말합니다. 주사파는 김일성주의자들로서 자유주의자의 적입니다. 주사파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반도에서 정통성이 있는 국가로 생각합니다.

3. 친미시대주의자 이승만과 친일 쿠데타세력 박정희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까닭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로서, 친일파와 손을 잡고 민족의 자주성을 팔아먹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반쪽 나라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둘째,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천황의 장교가 되어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다가, 해방 후에는 남로당 군사총책으로서, 비밀지하 혁명동지를 팔아먹고, 목숨을 건졌다가, 다시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아서 반민중 반민족 반민주 친일 친미 사대주의 정권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4. 세계적 영웅 이승만과 박정희

반면, 자유파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파는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파는 박정희가 이끈 한강의 기적이 우리나라의 오늘을 만들었고, 중국, 베트남 등 세계 여러 나라에 “하면 된다”는 희망과 방법을 알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Ⅲ. 주사파의 승리

1. 문재인·김정은 주사파의 집권

좌우대립의 역사란 바로 주사파와 자유파 사이의 체제전쟁을 말합니다. 먼저 현재의 정세는 문재인+김정은 주사파 공동체가 사상이념·권력의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주사파의 수십년 전복전략에 의해 점령됐습니다. 자유파와 주사파는 적대적 관계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은 사상이념 체제투쟁에서 주사파가 승리하여 집권하고 있습니다. 주사파는 군사력과 무력을 쓰지 않고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구속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전개된 반체제세력의 촛불집회와 체제수호세력인 태극기집회의 대결은 일단 반체제세력인 촛불집회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017.5.9. 대통령선거에서 촛불 대통령 문재인이 당선됨으로써, 주사파가 대통령중심제에서 대권을 장악했습니다. 비록 거짓과 사기 탄핵이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곧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킴으로써, 자유파의 70년 체제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2. 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

종북주사파집단이 추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촛불혁명정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세력을 적폐세력으로 몰아서 마구잡이 구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며, 그 동안 사람중심의 민중민주주의 개헌을 하려다가 저지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종북 주사파 정권이며, 김정은과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3. 존경하는 사상이 신영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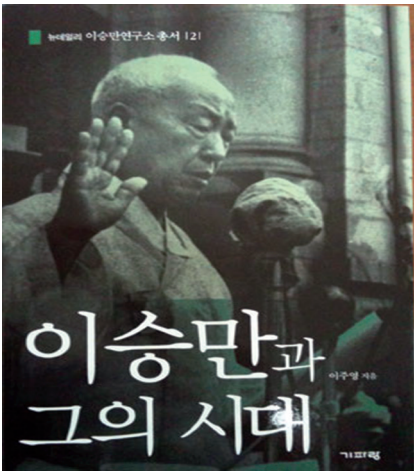
문재인대통령이 신영복을 사상이로서 존경한다고 평창올림픽 개막 리셉션에서 커밍아웃한 것은 이미 주사파들이 사상이념·권력의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 펜스 부통령, 아베 일본 수상, 북한 김영남·김여정 등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참석한 올림픽 개막 리셉션 자리였습니다.

4. 빨갱이·기생충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과 사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을 두 번이나 역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첫 번째 민정수석으로 임명하여 2년 2개월 근무하게 한 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조국은 국회청문회에서 스스로 사회주의자며, 전향은 쓰기도 싫은 단어라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국회 청문회에서 밝힌 국가보안법 위조수형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조국의 부모, 형제, 아내, 아들·딸까지 위조, 사기, 횡령, 배임, 위장이혼, 증거인멸 등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음을 알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 혁명동지 조국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끝없이 터져나오는 조국의 추악한 기생충 가족 모습과 그 뻔뻔함을 보고 젊은이들까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을 거듭하면서, 조국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2020. 1. 20. 김문수)

이승만과 그의 시대



이 책은 오늘날의 “자유와 변역”을 가저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승만(李承晩, Syngman Rhee, 1875~1965) 대통령의 일생과 그 역사적 의미를 알리려는 목적에서 쓰여진 것이다. 90년에 걸친 이승만 박사의 긴 생애는

역사적 인물 4명의 뒷에 해당하는 다양성을 보여 주었다. 청년기의 독립협회 활동, 중년에서 노년에 걸친 독립운동, 해방직후의 건국운동, 대통령 재임기간의 통치 행위는 각각 한 역사적 인물의 업적으로 기록될만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이처럼 길고 다양한 그의 생애를 한 권의 책에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그의 생애 전체를 다룬 전기를 쓴다고 생각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건국(建國), 호국(護國)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필자는 몇 년 전에 배재학당총동창회(당시 회장 윤영노)의 협조로 <우남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도서출판, 김&정, 2008)를 출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은 그것을 토대로 다시 쓰여진 것이다.



윤대영목사

다윗이라는 이름의 왕이 살았다. 어느 날 오후 왕궁 옥탑에 올라갔다. 그 맞은편 한 여인을 보았다. 아리따고, 예뻐던지 신하를 시켜 누군지 알아보았다. 그녀는 다윗 자신에게 충성하는 우리아 장수의 아내였다. 그러나 어찌하랴? 이미 그 여인과 관계는 이루어지고 말았다. 이성을 찾고 보니 큰 범죄를 한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왕이라 진술하게 죄를 장수에게 고백하고, 잘못을 빌어본들 오히려 복수국이 벌어질 것이고,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면 왕의 권위만 떨어질 것만 같다. 현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기로 했다. 관계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하니 이것부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한창 전장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장수를 갑자기 휴가를 주어 자기 부인과 함께 있게 함으로서 자신의 불륜이 은폐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충신 장수는 오히려 왕의 왕궁을 밤낮 지키다가 전선으로 떠났다. 최후의 수단을 강구했다. 충신 장수를 최전선으로 배치하고, 갑자기 군사들은 후퇴하므로 말미암아 그 장수는 적군에 의해 죽게 만들었다. 세

이승만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국민의 대다수가 그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사실이다. 2008년의 어느 대학 연구소가 조사한 역대 대통령 인기도를 보면, 이승만은 겨우 0.6 퍼센트를 얻었을 뿐이었다. 이처럼 우리 국민 속에서 잊혀지고 지워지고 왜곡되어 있는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제대로 알리는 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 책에서 언급되지 못한 내용들은 뒤이어 나올 후속편에서 계속 다루게 될 것이다.

이주영 (李柱郢)

목차

글쓴이의 말: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과 그 역사적 의미

1. 문명의 전환기에 성장한 서울 소년
2. 혁명가가 되었던 개화와 청년
3. 해방문란기에 대한 적응능력을 갖추려 하다
4. 독립을 찾는 길은 외교뿐이다
5. 국적 없는 망명객의 외로운 독립투쟁
6. 소련의 한반도 개입을 우려하다
7. 좌우합작하면 공산화된다
8. 자유총선거로 정부를 세워야 한다
9. 대한민국은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10. 한반도 최초의 자유민주공화국
11. 없어질 뻔 했던 나라가 살아남다
12. 동맹국을 얻으려는 약소국 지도자의 비량 끝 전술
13. 자유민주주의 도입과 실험
14. 국가가 발전할 토대를 마련하다
15. 물려날 때를 놓친 '건국의 아버지'

맺음말: 자기 시대의 의미를 알았던 지도자

윤대영 목사 칼럼

국민을 행복하게 하라.

상은 조용해졌다. 왕의 마음에도 안심 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한가한 오후 한 노인이 찾아왔다. 억울한 일을 호소한다고 했다. 한 가난한 목자가 있었는데 새끼 양 한 마리를 키우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양이 아니라 식구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 옆집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양의 숫자가 많고, 염소도 많고, 소도 많았습니다. 그 부자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하자면 양 한 마리를 잡아야 하는데 자기들의 양을 잡자니 아까웠습니다. 목표하는 숫자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옆집 목자를 억박 질러서 그 양을 빼앗아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찌면 좋겠습니까? 이때, 다윗 왕은 당장 그놈을 엄히 엄벌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 노인은 다윗 왕을 쳐다보며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소문이 묻혀진 것 같으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고, 죽은 충신 장수와 그의 빼어난 충성과 사람 됨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 이후 다윗 왕의 아들이 반정을 일으켰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왕 이하 모든 사람이 피난을 떠났다. 그 다음 날 아침 미쳐 피난 가지 못한 다윗 왕의 후궁들을 백주에 끌어내어 모두 욕을 보이고 말았다. 그 반정을 일으킨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벌써 삼 천년 전에도 왕의 직권남용의 죄는 하늘의 형벌이 집행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역사이다. 권리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 권리의 주인이 국민이므로 대통령은 국민의 청지기로서 오직 위임받은 권

리이므로 국민만 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사하면 그것은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다. 직권남용의 범죄는 완전범죄를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하늘이 그에게 필연적으로 징벌을 한다는 죄이다. 소위 천벌을 받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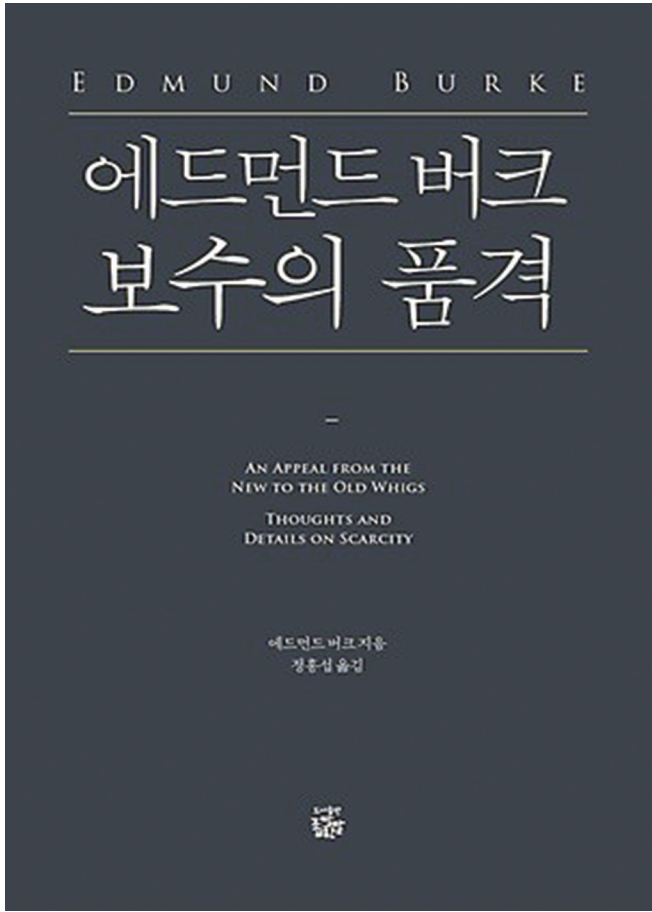
‘친구’라는 영화가 오래전 상영되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배경이 부산이다. 부산 친구들은 의리가 있는 것 같다. 그 의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인간애이다. 한 시대를 살면서 동일 문화권에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은 농경 사회부터 있어왔던 아름다운 인간애이다. 한 친구가 벼슬을 하고 죽마고우가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는 것은 인간미가 있고, 후덕하며, 삶의 향기가 나는 행동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당사자가 대통령이 라고 하면 사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복 중에 공복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그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사사로운 인정을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전 국민들의 권리를 자신의 사사로운 관계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상대 피해자가 있다. 즉 선거일 경우 경선에서 낙선된 사람이 있다. 낙선된 한 사람 자연인만 있는 것이다. 낙선된 자를 지지한 자들에게 권리를 배설물처럼 여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가의 세원(稅源)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투자, 그리고 지원사업을 했다면 국가의 공적 재산을 강탈하여 특정한 자신의 관계인에게 증여한 결과가 된다. 먼저 권력자인 대통령과 협의를 한다.

내가 입후보하는 지역사회에 이러이러한 공약을 한다면, 혹은 이러이러한 공급시설을 세운다고 한다면 유권자들이 나를 지지하여 줄 것 같으니 도와달라고 할 때, 약속을 하고, 국가 공무원들 현장에 보내서 선거를 치르기 전에 현장 답사나 공약 사업을 할 것 같은 기대를 주면 당연히 유권자는 대통령과 관계있는 사람들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선거전략은 다분히 직권남용인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징벌 대상이다. 이러한 대통령 직권남용을 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조사하려는 검사를 인사조치하므로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숨기려는 행위를 하므로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권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혐의를 잡고 조사하는 사법관을 조사하지 못하게 조직 개편이나 인사조치를 한다면 그 담당인 법무부 장관도 역시 공범이 되는 것이다.

국민이 국민으로 사는 것은 생리적 욕구 충족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 때, 국민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국민된 행복을 무참히 짓밟는 권력이라면 국민을 불행케 한 중범죄자 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고개 숙일 줄 아는 대통령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대통령이다.

보수주의의 정치적 가치와 유산을 바르게 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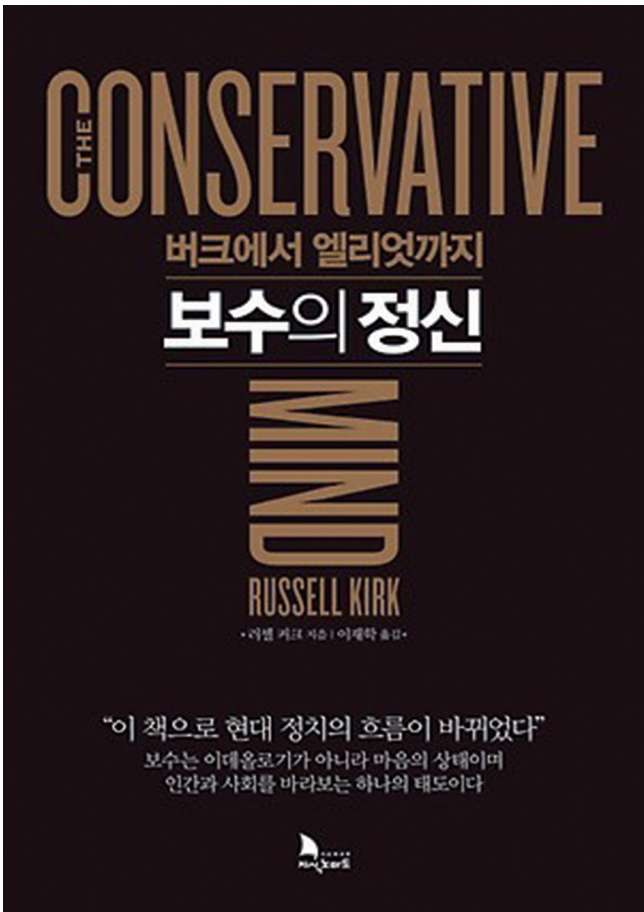
진정한 보수주의 사상의 핵심 가치를 정립하다!

“이 책은 우리 문명의 정치적이고 정신적이며 지적인 전통을 지켜내려는 우리의 노력에 바치는 나의 헌신이다.” - 러셀 커크

『보수의 정신』은 패퇴를 거듭하며 “바보들의 무리”라고 조롱받던 미국 보수주의가 부활할 수 있는 사상적 기초를 정립한 책으로 평가받으며, 20세기

불후의 고전이 되었다. 프랑스 혁명 직후의 버크에서부터 20세기의 엘리엇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보수주의자들의 사상을 검토하여, 보수주의는 고정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오히려 추상적 설계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려는 이데올로기에 맞서 사회 발전을 이끌어 온 현실적인 고뇌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사회 발전을 위한 개혁이 사회 그 자체를 태워버리는 대화재가 될 수 있음을 간파한 버크, 다양성이라는 미덕 아래 획일화된 평범함이라는 악을 품은 민주



주의의 모순을 읽어낸 토크빌, 추상적 자유는 방종이기에 법 앞에서의 규범적 자유를 옹호한 존 애덤스 등, 이 책은 자유주의가 초래할 위험과 폐해를 통찰한 보수주의자들의 위대한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다.

정치적 보수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가 왜 진보좌편향주의, 사회민주주의 보다 사회를 더 건강하게 이끌 수 있는 지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토대와 논리적 개념적 토대를 제시한다.

[연재] 이승만시대(2) 상투 자른 개화청년, 한국 최초의 일간신문 창간

과거시험에 모든 희망을 걸다
그의 집안은 당시의 모든 조선인들 처럼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살았다. 어머니는 당시의 보통 아낙네들처럼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절에 다녔다. 그 절들은 북한산 대남문 밑의 문수사와 옥수동의 미타사였다. 나중에 그

어려운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도 10년을 서당에 보냈던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과거시험에 합격시키려는 마음에서 13살이 되는 1887년부터 과거에 응시토록 했다. 본래는 15살이 되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었지만, 그 해만은 왕세자의 나이와 동갑인 14살까지 허락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했던 이승만의 부모는 한살을 늘어 응시를 하게 했던 것이다. 과거를 보는 날 이승만은 신무문을 통해 경복궁으로 들어갔다. 가난했기 때문에 굵 높은 나막신을 신고 들어가다가 문지기 포졸의 제지를 받자, 그것을 벗고 맨 발로 들어갔다.

그러나 시험결과는 불합격이었다. 그후로도 그는 계속 응시를 했지만, 헛수고였다. 당시의 정부의 부패로 돈과 권력이 없이 과거에 합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침 부패한 과거제도마저도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19세의 이승만은 삶의 목표를 잃게 되었다.

가 대통령으로 있던 1957년에 82세의 나이로 문수사까지 걸어 올라갔고, 그 때 써 준 현판이 그 절에 아직 보존되어 있다.

그런 전통적인 집안에서 서양 의학을 알게 된 것은 큰 충격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집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변화의 불씨를 던져준 것 만은 분명했다.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은 어린 이승만이 빨리 과거시험에 합격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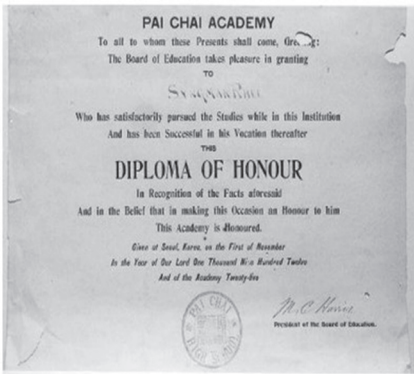
▲ 이승만 10세때, 1885년 8월 미국 선교사 H.G.아펜젤러가 세운 배재학당. 1886년6월 고종이 '배재학당'이란 이름을 내렸다. ㉔

영어나 배운다는 생각에서 배재학당에 입학

그때 동동서당 친구였던 신금우가 찾아 와서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세운 신식학교인 배재학당(培材學堂)에 가자고 끈질기게 권유했다. 그 친구는 나중에 배재학당 교장과



▲이승만이 영어를 배우면서 한글을 가르쳐준 여사 김아침 자매.



▲이승만이 졸업한 배재학당 1912년에 받은 명예졸업장.

▲ 이승만이 발행한 신문들. 배재학당 토론회인 협진회 대표로서 '협진회보'를 발간했다.

종업부 이승만이 창간한 ' 매일신문'과 '세국신문'. 이것은 한국 언론사상 최초의 민간 일간지들이다.

주일대표부 대사를 지낸 신홍우의 형이었다.

이승만은 영어를 배운다는 가벼운 기분으로 1895년 4월 2일에 배재학당에 입학했다. 물론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배재학당에서 이승만은 영어에 대한 특출한 재능을 나타냈다. 그는 방과 후에 미국인 교사들을 찾아다니며 궁금한 것을 물으면서 영어를 익혔다. 그리하여 입학 6개월 만에 신일

생들에게 초보 영어를 가르치는 조교가 되었다.

영어는 그에게 생계 수단이 되기도 했다. 새로 온 미국인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용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그가 진교개의 제증원에 의료선교사로 온 조지아나 파이팅 양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받은 20달러라는 큰 돈을 집에 내놓자, 온 가족이 깜짝 놀랐다. 그 때야 비로소 이승만은 배재학당에 다닌다는 것을 가족에게 말할 수 있었다. 당시 배재학당에는 나중에 한글학자로 유명한 주시경(周

時經, 1876-1914), 당시의 이름은 주상호)도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주시경은 한글을 연구하러, 이승만은 정치를 하러 배재를 다닌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이충구, 이익채, 유창렬과 같은 개화당의 열혈 청년들과 어울리면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했다.

이승만은 배재학당에서 발행하는 학생 신문(협진회보)의 편집장을 맡았

다. 그 논조는 정부에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아펜젤러는 학생들이 정부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사를 검열하려 했다. 그러자 이승만 등은 학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문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들은 10년 전 일본에서 들어온 인쇄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인 <매일신문>을 한글과 영문으로 발간했다. 언론인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새로운 문명에 적응하기 위해 상투부터 자르다

배재학당에서 이승만은 훌륭한 서양인 교사들을 만났다. 특히 미국인 W.A. 노블 박사와 D.A. 벙커, 영국인 F. 올링거 박사 등과 가깝게 지냈다. 그는 선교사들로부터 영어로 된 책과 신문을 빌려 읽었다.

제증원의 의료선교사로서 나중에 연희전문학교 교장이 된 O.R. 에비슨 박사와는 매주 일요일에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이승만의 과격한 성격을 걱정한 에비슨은 그에게 신중하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또한 이승만은 영문으로 "조선역사"를 쓰고 있던 호머 헐버트 박사에게는 수시로 만나 한국의 문화에 대해 자문해 주었다. 에비슨과 헐버트는 한국어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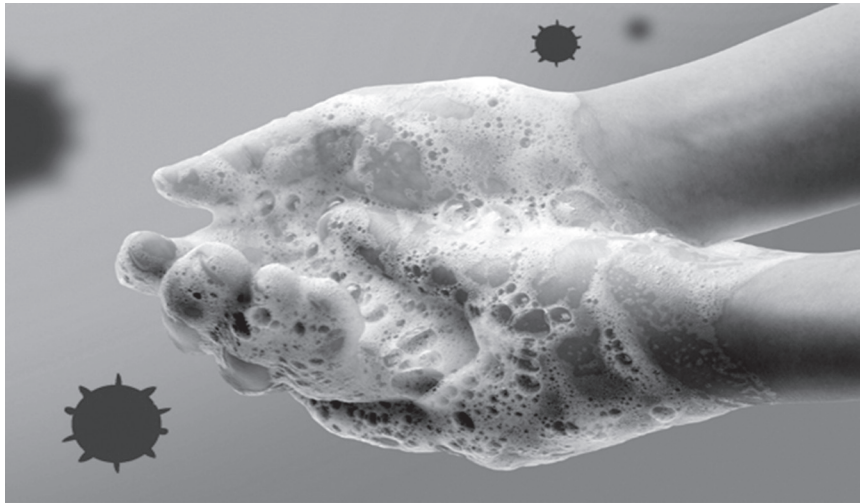
방을 맞아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오래 살면서 이승만을 도왔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갖고,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는 미국인들의 자유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제도는 군주제와 신분제의 굴레 속에 서 살아온 이승만에게는 너무나 새롭고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사회를 바꾸려 하기 이전에 우선 자기 자신부터 변화하려고 했다. 인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 우선 생각해 낸 것이 상투를 자르는 일이었다. 결심이 서자, 그는 양녕대군을 모시기 위한 사당인 지덕사로 달려가서 조상들 위패 앞에 엎드려 시대의 변화에 따르겠다는 선고식을 마쳤다. 그리고는 O. R. 에비슨 박사의 집으로 가서 그의 도움으로 상투를 잘랐다.

그것은 개화와 청년으로서 개인의 차원에서 나와 근대화에 착수해 보려는 결단에서 나온 과감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신과 가족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집에 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저자 이주영(李柱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궁금증 12가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을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Q1.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이 유행하고 있는데 중국 여행을 가도 되나요?

A. 대한민국정부는 최근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여 중국 후베이성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를 발령하였습니다.

WHO에서는 중국을 여행 제한구역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Q2. 중국 여행 시 감염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방문 중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

로 방문하시고,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 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Q3. 중국에서 발생하는 폐렴 원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A. 원인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현재 정확한 치명률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Q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사람간 전염이 되나요?

A.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폐렴에 대해서는 제한적 정보들만 중국 보건당국과 WHO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라는 점과 일부 사람 간 감염도 있을 수 있음이 알려졌지만 정확한 감염원이나 감염경로,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Q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은 백신

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A.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으며, 치료는 증상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Q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진단법이 있는지요?

A. 질병관리본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과 염기서열분석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속한 검사를 위해 특이 검사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Q7.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인가요?

A.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8.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있을 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고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상 발생 시 타인 접촉을 최소화

하고,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손씻기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Q9.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중 어느 하나라도 나타나면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을 방문한 후에 증상은 없지만 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감염병에는 잠복기가 있어 이후에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11.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을 방문하고, 입국할 경우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A.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며 발열, 호흡기(기침, 인후통 등) 증상 확인하여 국가지정임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합니다.

Q12. 중국을 경유하는 전제 국제선의

승무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나요?

A.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여행객과 장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드리나, 해당 항공사의 감염예방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손씻기 방법

손은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6단계를 잘 준수하여 닦아야 한다.

손씻기

- (1단계) 손바닥 :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 (2단계) 손등 :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 (3단계) 손가락 사이 :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질을 끼고 문질러 주세요
- (4단계) 두 손 모아 :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주세요
- (5단계) 엄지 손가락 :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주세요
- (6단계) 손톱 밀 :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자료제공=질병관리본부)



사설

교회 패러다임과 트렌드church paradigms & trends를 바로 알자

지난 사설에서 교회 패러다임과 트렌드를 알자 첫 번 주제로 위험한 교회의 7패러다임을 다루어 보았다. 이번에는 지난번 주제에 이어서 교회 트렌드를 바로 알았으면 한다.

교회 트렌드에는 전통교회, 현대교회, 미래교회로 구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을 알고 목회자와 모든 교회들이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현대적 맥락의 세 가지 특징을 민주주의적 이상의 인기, 복잡한 사회 체제의 출현,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라 했다. 그는 성경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단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시대 흐름을 외면하면 시대와 교회는 단절되고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를 보는 것이든, 교회이든 분별의 핵심을 잃으면 그 위험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동안 전통 교회에서 현대 교회로 그리고 미래 교회의 동향을 알게 되고 앞으로 한국교회의 트렌드와 함께 처치 플랜팅church planting의 흐름도 예측하게 될 것이다.

① 전통 교회traditional church

역사적 교회이며 교단에 소속 되어온 제도와 조직 형태의 교회로 한국 대다수의 교회가 포함된다. 첫째, 계몽적 합리주의자(자연과 이성을 진리의 토대로 삼는 철학)나, 개인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하고 사회복음social gospel과 종족주의tribalism(이성과 상식에 속한 진리를 최종 판단의 근거)를 닦아가려는 것을 버려야 한다.

둘째, 구원관의 축소-개인의 구원과 침례에 지나친 집중이 성화 과정과 하나님의 나라 실현에 소홀해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회복에 힘써야 한다.

셋째, 적대적 사고-예배와 설교가 교회 내부자 중심으로 획일적이며 시대와 사람과 문화의 단절로 교회가 점점 고립 되고 다양한 영적 성장과 경험을 통한 변화가 시급하다.

넷째, 교회론 약화-직제, 직분, 역할, 운영, 조직 구조로 교회의 본질인 유기적 공동체, 연합과 협력, 참여와 활동, 섬김과 개척 신앙의 결핍은 물론 교회의 투명성이나 목회자의 의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전통교회의 장점은 오래기간 자리를 지키며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산과 역할을 하고 초기 교회 토착화를 이룬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갱신과 개혁 없이 전통 교회만을 고집하는 것은 위험하다. 교회는 새롭게 변화하고 네트워크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며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에 모든 교회는 연합 되어야 한다. 새로운 교회를 향한 전통 교회들의 변화가 시급하다. 전통, 제도, 교리, 신학, 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이 시대에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문제가이다.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 시대적이며 문화적으로 해결 가능한 복음적이며 변혁적 교회가 되기 위한 철저한 의식이 필요하다.

② 현대교회modern church

현대주의와 시대의 문화에 따른 독립성이 강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상호 연대와 의존에 의해 변화의 범위를 제한한다. 복잡한 현대 사회처럼 교회도 해결해야 할 것들이 쌓여 간다.

첫째, 사람들의 감각과 요구에 민감한 반응

둘째, 원칙과 질서보다 개인주의와 합리성에 의한 교회의 틀 탈피

셋째, 독특한 캐릭터와 자율적 분위기-예배형식, 설교유형과 태도, 교회건축과 시설, 소속감, 헌금, 봉사, 조직의 자율성

넷째, 세대와 문화에 관심을 집중하는 특이한 교회

Gen X(베이비붐 세대를 잇는 다음세대), Gen E(2001년 이후의 emerging & emergent 세대), 사람보다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보다 도덕을 강조하며, CEO형 지도자를 고용하고, 자신의 모임을 강화하고, 교회개혁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이다. 문화 참여(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비슷한 모습), 공동체 세우기, 형식 탈피(더 즐거움을 추구), 정직한 설교, 강렬한 예배(지나치게 상황에 맞춘 예배) 등을 통해 어떤 종류의 사역이 새로운 세대에 먹힐까를 찾는 데 몰두한다.

현대교회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을 교회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가는 이들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계시와 상관없는 역사, 언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현대교회들이 포스트모던 시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복음을 상황화하려 흡사한 문화를 받아들이면 복음을 놓치게 되고 결국 혼합주의syncretism(레슬리 뉴비긴)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교회는 탈정조주의, 다중관점주의multiperspectivalism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뤄지도록 교회로 선택하심을 정체성의 근원에 두어야 안전

하다. 모든 관점이 자신에게서 실존적 의미 추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기 위해 신뢰와 믿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모더니즘modernism은 과학과 합리주의 위에 세운 건물, 힘과 능력의 도시, 자연과 가난과 무지를 정복하려 한다. 그러나 모더니즘은 인간의 영혼이 느끼는 가장 깊은 갈망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결국 인간 내면의 삶은 파멸되는 것이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은 시간과 공간에서 제의 대신 포함, 개인주의 대신 공동체, 힘 대신 섬김을 표방한다. 이성에 기초한 우주적 진리에 관한 서술을 거부하고, 진리를 자신의 시각으로 보며, 교회도 하나의 문화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교회에 대한 분별력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목사는 시대적 교회를 한다는 것을 마치 교회 자체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교회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교회가 시대적 교회가 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대적 상황화된 교회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복음 중심적 교회가 되고 수직적 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의 중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들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우선시 하는 것은 결국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는 이탈로 인하여 교회는 더 이상 시대에 답을 주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현대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시대적 교회의 틀에 속박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시대를 담고 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스트모던을 급진적 모더니티radical modernity로만 사용한다. 현대교회 목사들은 시대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서 다른 사상가들이 주도하는 개념에 찬반도 없이 수긍하는 처지에 놓이고 교회의 권위는 공동화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대의 정의, 흐름의 의미, 해석의 기준, 주장과 원리를 파악해야 시대로부터 교회가 해를 입지 않게 된다. 시대와 동떨어진 구성주의constructivism(자신의 경험에서 지식과 의미를 구성한다는 심리학 이론)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교회의 위험도

뿌리가 없는 교회/감독과 지도와 책임이 없음(분열)/목사의 의존도 높음/복음과 예수님의 삶 부족/성육신적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 약함.

③ 미래교회future church

하나 되고 공유하는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이며, 세계화 교회로의 진입과 도시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팀 교회이다. 목사는 새로운 교회 모델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 교회를 세상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우리 문화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게 할 것인가? 개인주의 세상에

서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는 도시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하는가? 도시의 복음 비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앞으로 교회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통해 의미를 찾아내어 모델을 세우는데 힘써야 한다. 이런 교회를 제3교회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목사들이 세우려는 교회는 과거로부터 지켜내고 탈피하려는 전통교회 그리고 현대교회가 되기 위한 적응과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선점하려는 의욕 리더십을 버려야 한다. 전통교회와 현대교회를 파악하여 교회의 본질과 장점을 극대화하고 말씀으로 계시된 교회를 찾고 사도들이 이행한 교회를 실현시키는 철저한 미래 교회를 준비하고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목회관을 기필코 이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미래 교회의 실제적 3유형

첫째, 경계 집합형 교회bounded-set church안팎의 구분이 뚜렷하고 내부 구성원 간 공통점 또한 뚜렷한 교회-결정을 위해 엄격한 경계선을 긋고 분리시키며 자기 편인지 확인하고 뜯어 본다.-울타리를 치는 교회

둘째, 관계 집합형 교회related-set church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네트워크 되어 있는 유기적 연결의 교회-성령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로 신앙과 삶의 깊은 경험을 통해 성숙함과 심김으로 서로를 세워준다.-교회가 각 시대와 환경에서 어떤 모습인지 발견-함께 통로가 되는 교회

셋째, 중심 집합형 교회centered-set church구성원 하나하나가 중심과 어떤 관계인가를 강조하는 교회-핵심가치의 기준과 내부인과 외부인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중심에 둔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다(프로스트, 허쉬).-중심 자리 쟁의 교회(계7:17).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물으며 체험하는 곳이다(엡5:25).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도록 인도하는 곳이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분 안으로 초대하는 곳이 교회이다. 세상에서 좌악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삶으로 이끌리도록 교회는 사람들을 초대해야 한다. 목사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세밀하게 배려하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교회는 사람들을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하여 소망을 갖게 하는 곳이다. 바로 미래 교회는 중심 집합형 교회를 의미한다. 물론 경계와 관계의 영역도 다소 관찰되지만 지향성은 중심 집합형이다.

어떻게 하면 교회는 인간이 구하고, 묻고, 대화하고, 논쟁하며,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눈으로 확인되고 표현되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가? 사람들

이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할 때,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복음의 연합과 차이점의 존중과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성장하는 안전한 환경을 세우는데 힘써야 한다. 교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단순히 교회의 구성원을 평가하기 위한 지배적 역할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도구인가? 전통교회들은 교리를 문자기로 배치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한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믿음을 성숙하도록 기여하기보다(살후1:3) 울타리를 쳐놓고 그 속에 가두는 경계를 만든다. 그런 교회는 믿음과 소속감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곳임에도 공동체를 양극화 시키려는 유혹을 벗지 못한다. 교회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믿는 것과 소속되도록 하는 것을 도와야한다. 교회 안에서의 교리(요일2:22)와 윤리(요일3:14-15, 마7:15-20)는 더욱 교회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교회를 깨뜨리며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한 올무가 아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쳐야하는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고 더 깊은 헌신하는 네트워크 메이커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게해야 하는가? 개인구원이 중요하다. 개인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창조 세계를 포함한다. 그러나 교회가 개인구원만을 강조하다 보면 지나치게 개인에게 집중하게 되고 결국 기독교는 개인사가 돼버린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도울 뿐 아니라 문화, 가정, 정치, 예술, 시장 등, 창조 세계의 모든 부분을 바꾸도록 돕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전이 교회에 차고 넘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다. 교회가 전통교회로만 갇혀있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한다. 교회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나라이다. 전통교회는 개인 구원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소홀하게 되었다고 맥클라렌은 말했다. 개인화된 신앙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시각과 선교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 기독교의 핵심은 개인의 성장과 순종, 도덕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최종 목적이 아니다. 속죄의 교리와 침의 교리는 복음의 중심이지만 전부가 아니며 교회 공동체의 소속은 물론 하나님나라 실현까지 복음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 구원과 하나님 섬김의 메시지를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한다.

복음축소주의란? 그리스도인은 자신

밖에 모르고, 언제나 자신의 영적 체온만 재며, 자신의 영혼만 신경쓰고, 나머지가 되는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회는 개인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에 대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 뿌리가 되어 하나님나라의 열매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맺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살아내는 소명까지를 다룬다.

하나님나라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나라의 구성원이라는 확신

둘째, 속죄, 침의, 그리스도와 의 연합으로 하나님나라의 구성원으로 과정

셋째, 하나님나라의 삶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 하려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상기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하라는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에서 흘려나와 성령을 통해 내 삶에 임하는 은혜가 없으면, 그의 나라의 삶을 살수 없다. 예수님은 외적인 복종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꾸짖었다(마5:21-22). 먼저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예수님을 왕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명에 매고 그분의 길을 배우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나님나라는 우리가 건설하거나 앞당기거나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나라는 우리가 보고 들어가고 받는 것이다. 하나님나라를 보려면 회개하고 얼마나 우매한지 인정하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미래 교회의 특징

첫째, 깊이 있고 뿌리가 있는 예배

둘째, 기쁨만큼 존경과 머리와 가슴이 연결되는 복음과 교회신앙 경험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서로의 네트워크

넷째, 하나님나라를 실현하는 거듭나고 연합하는 공동체

다섯째, 교회가 교회를 세우며 모두가 플랜터로 팀을 이룸

천만인 서명이야기 - 김용백목사



길거리에서 열심히 외치고 서명을 받는 사람들 전국 253개 지역 위원장들인데 안양지역 만안구를 담당하시는 한문자 목사를 만나 그 현장을 동행 해본다.

2019년 문재인하야하라 서명팀이 발족된 후 최 일선에서 서명을 받느라고 헌신하는 현장을 찾아 이야기를 들어본다.

2020.1.18(토) 문재인하야하라 (서명운동) 서명팀 활동을 따라가 본다.

18일 아침 6시 광화문 이승만광장 교보문구앞에 자리를 잡고자 안양에서 출발한다. 다른 팀은 금요일아 예배를 드리고 아침 안양 만안구 팀과 함께 한다.

한편 전국 253개 지역팀들은 광화문광장에자리를 잡고자 치열한 경쟁을 한바탕 치른다.

안양 만안지역 서명운동팀은 광화문 이승만광장 교보문구앞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안양지역장 한문자 목사님의 중심으로 팀웍을 이루어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애국의 운동 사명명을 감당하는 열정을 보여 주고 있다.

강영철기자



죽염 9회 고체 분말 5회

3회 죽마고우 된장 고추장 죽염수 히트상품

인산家



인산의학지 월간지 구독신청시 무료 보내드립니다.

仁山의학



인산家

인산家

☆ 목회자 특별할인혜택 ☆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
THE LORD'S LOVE WORLD MISSION CENTER

※ 현재선교분야 ※

- 케냐, 인도, 필리핀, 일본, 벨리즈, 캄보디아에 천국 지옥 간증 집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한 영적대각성운동
- 물이 부족한 지역에 물통설치 및 성경보급, 교회건축
- 어린이 방과 후 학교 40군데 운영
- 신학생들 학비와 생활비 보조

여러분의 후원으로
세계선교가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
The Lord's Love
World Mission Center



예금주 주님의사랑교회 (한국)
계좌 140-012-615297 (최신)
신한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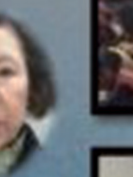
예금주 Lord's Love Christian Church (미국)
계좌 207190448 Citibank
Swift code : CITIUS33
Paypal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대표
서사라
목사

회장
이창복
목사

부회장
양철주
목사

부회장
김진석
목사



고문
권오준
목사

고문
이성무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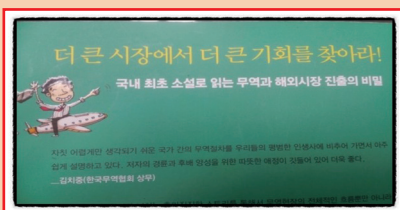
고문
서아론
목사

고문
서영자
목사

고문
권경자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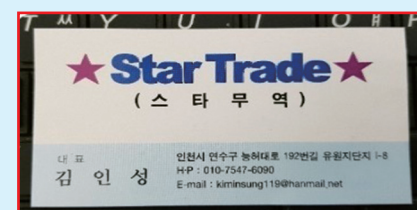
믿음모터스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75 수출2단지 (믿음모터스)
HP : 010-3257-2503

현주무역 대표이사 : 이원대안수집사(열린문교회)

☆ Star Trade ☆
(스타 무역)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92번길 유원지단지 1-8
HP : 010-7547-6090

스타무역 대표이사 : 김인성집사(열린문교회)

